

제 5 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한문 I]

성명

수험번호

3

1

1.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1점]



주영: 선생님이 소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이네.
훈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松下(㉠)圖'라고 하지.

- ① 詩吟 ② 閑寂 ③ 宴會 ④ 授業 ⑤ 對酌

2. 두 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들 때, ㉠과 ㉡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옳은 것은? [1점]

○ (㉠) + 刀 = 새길 각 ○ 莫 + (㉡) = 사모할 모

- ㉠ ㉡ ㉠ ㉡ ㉠ ㉡
① 亥 心 ② 至 心 ③ 亥 日
④ 至 日 ⑤ 倉 土

3.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 [1점]



- ① 圖 ② 寒 ③ 徒 ④ 渡 ⑤ 淑

4. 자전에서 한자를 찾을 때, ㉠에 들어갈 부수와 ㉡에 들어갈 획수로 모두 옳은 것은?

(㉠)
7 【補】 총 12획 보

자해 돕다

大 (㉡) 【夷】 총 6획 이

자해 오랑캐

- ㉠ ㉡ ㉠ ㉡ ㉠ ㉡
① 示 3 ② 示 4 ③ 示 5
④ 衣 3 ⑤ 衣 4

5. 그림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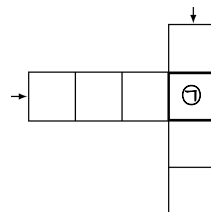
뜻이 비슷한 어휘를 유의어라고 해.
영주가 유의어의 예를 말해볼까?

유의어로는
(㉠)이/가 있어요.



- ① 和睦, 反目 ② 根本, 枝葉 ③ 收入, 支出
④ 激勵, 鼓舞 ⑤ 短縮, 延長

6.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만들 때, ㉠에 알맞은 것은? [1점]



[가로 열쇠]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이 일과 상관없는 제삼자가 이익을 봄

[세로 열쇠]

눈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리를 생각함

- ① 利 ② 中 ③ 得 ④ 益 ⑤ 危

7.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通風口 ② 非常口 ③ 換氣口
④ 回轉門 ⑤ 玄關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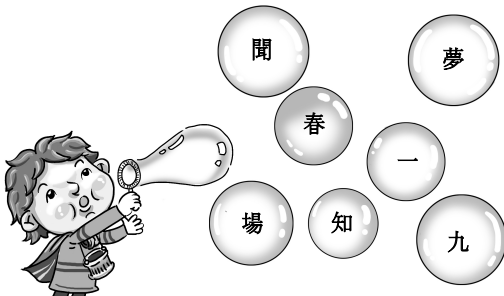
8.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는? [1점]

남산 아래 바보 한 사람이 사는데 어릴 때부터 스물한 살이 되도록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아 본 적이 없다. 그의 방은 매우 작지만 동쪽에도 창이 있고 남쪽에도 서쪽에도 창이 있다. 동에서 떠서 서로 기우는 해를 쫓아 별을 받아가며 책을 본다. 보지 못한 책을 보기라도 하면 좋아서 웃는다.

- 『영처문고』 -

- ① 文房四友 ② 身言書判 ③ 手不釋卷
④ 一筆揮之 ⑤ 溫故知新

9. 그림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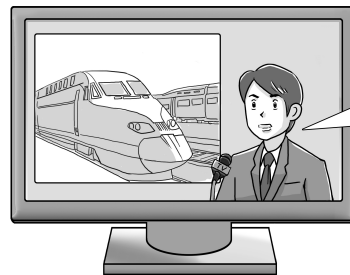
- ①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② 한평생이 참으로 덧없이 지나갔네.
③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구나.
④ 하나를 가르치면 모든 것을 아니 신통하군.
⑤ 푸른 바다에 좁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다.

10. ㉠처럼 의미가 같은 말이 중복해서 쓰인 경우가 아닌 것은? [1점]

㉠ 넓은 廣場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 ① 그는 관객들로부터 많은 好評을 받았다.
② 올해도 방방곡곡에 無窮花 꽃이 피었다.
③ 매년 東海 바다의 수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④ 그녀는 남은 餘生을 남을 위해 봉사하며 보냈다.
⑤ 주인공이 떨어지는 落葉을 보며 못내 아쉬워했다.

11.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의 한자 표기로 모두 옳은 것은?



○○역 자기 ㉠부상 열차
공사장에서 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전기선에 감전돼
㉡부상을 입었습니다.

- ㉠ ① 浮上 ② 浮上 ③ 付上
㉡ ④ 副賞 ⑤ 負傷 ⑥ 副賞

12.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속담은?

作事, 切須詳審謹慎, 不可輕率怠緩.

- 『순암집』 -

- ① 개천에서 용 난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③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④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13.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답사에 연륜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문득 떠오르는 경구는 '人生到處有上手'였다. 하나의 명작이 탄생하는 과정에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수한 상수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것의 가치를 밝혀낸 이들도 내가 따라가기 힘든 상수들이었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6』 -

- ① 一魚, 混全川. ② 既借堂, 又借房.
③ 飛者上, 有乘者. ④ 天之方崩, 牛出有穴.
⑤ 談虎虎至, 談人人至.

14. 글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

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

* 桐(동): 오동나무
- 『출전 미상』 -

- ① 검소 ② 예의 ③ 용맹 ④ 지조 ⑤ 충명

15. ㉠과 ㉡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 『명심보감』 -

○ 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諸難.

* 爾: 가깝다
- 『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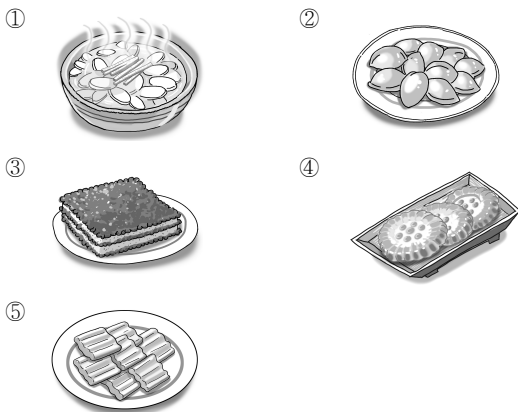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① 주다 | 고치다 | ② 더불어 | 바꾸다 |
| ③ 주다 | 바꾸다 | ④ 더불어 | 쉽다 |
| ⑤ 주다 | 쉽다 | | |

[16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歲時, 作打白餅, 切以爲湯, 能不傷寒暖而耐久, 取其淨潔, 俗謂不食此餅, 不得歲云. 余㉠強名, 爲添歲餅.

* 餅(병): 떡
- 『청장관전서』 -

16.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식에 해당하는 것은? [1점]



17.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強行 ② 強風 ③ 強健 ④ 強弱 ⑤ 強國

[18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天下有兩大衡, 一是非之衡, 一㉠利害之衡也. 於此兩大衡, 生出四大級. 凡㉡守是而獲利者, 太上也, 其次, ㉢守是而取害也, 其次, ㉣趨非而獲利也, 最下者, ㉤趨非而取害也.

* 趨(추): 쫓다
- 『여유당전서』 -

18. ㉠과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1점]

- ① 夜深 ② 下船 ③ 進退 ④ 貴賓 ⑤ 乘馬

19. ㉠ ~ ㉤ 중 편지글의 내용상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아들아. 지난번에 보내준 편지는 잘 받아 보았다. 유배 생활 중인 아버를 걱정하는 네 마음이 담겨있구나. 너는 나에게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애걸해서라도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 등급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는 (㉤)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짓을 해야겠느냐?”

- | | | | |
|-----|---|-----|---|
| ㉠ | ㉡ | ㉢ | ㉣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

[20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風來疏竹, 風過而竹不留聲, 雁度寒潭, 雁去而潭不留影. 故, ㉠君子, 事來而心始現, 事去而心隨空.

* 潭(담): 연못
- 『채근담』 -

20. ㉠을 비유하고 있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① 風 ② 竹 ③ 聲 ④ 雁 ⑤ 影

21. 윗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 ①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어야 해.
②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
③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해.
④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야 해.
⑤ 지난 일을 거울삼아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해.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孟子見梁惠王，王曰：“叟①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②吾國乎？”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㉔)矣。”

* 叟(수): 늙은이
- 『맹자』 -

22. ㉑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 ① 不 ② 遠 ③ 千里 ④ 而 ⑤ 來

23. 의미상 ㉑과 바뀌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汝 ② 彼 ③ 此 ④ 子 ⑤ 我

24.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㉔에 들어갈 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상하가 화목해진다. ② 내 몸이 편안해진다.
③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④ 백성이 늘어나게 된다.
⑤ 선비들이 다투게 된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李御史坐於堂上，故戲言之曰：“我欲以汝爲房守，汝雖①不從府使之令，何敢②不聽御史之命？”香娘避席而跪曰：“㉔幸望御史之神明，欲伸小妾之抑冤，㉕不意今者，反有此分付，此所謂(㉖)，且御史之命，雖曰㉗不同府使之威，小妾之節，其㉘不變，一也。”

* 跪(궤): 꿇어앉다 * 冤(원): 원통하다
- 『춘향전』 -

25. ㉑ ~ ㉘의 독음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㉑, ㉒ ② ㉑, ㉕ ③ ㉒, ㉖
④ ㉑, ㉒, ㉕ ⑤ ㉒, ㉖, ㉘

26. 문맥상 ㉔의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어사의 편찬에 원망을 품었다.
② 어사가 원통함을 풀어주길 바랐다.
③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말하겠다.
④ 이제 죽어도 원통함이 없을 것이다.
⑤ 나의 억울함은 천지신명이 알 것이다.

27.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㉖에 알맞은 것은?

- ① 苦盡甘來 ② 同儕紅裳 ③ 雪上加霜
④ 事必歸正 ⑤ 錦衣還鄉

[28 ~ 30]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㉑昨夜松堂雨， 溪聲一枕西。
平明看㉒庭樹， ㉓宿鳥未離棲。

* 棲(서): 살다

- 고조기, 「산장우야(山莊雨夜)」 -

(나) 岐王宅裏㉔尋常見， 崔九堂前㉕幾度聞。
正是江南好風景， 落花時節又逢君。

* 岐(기): 갈림길 * 崔(최): 높다

* 岐王(기왕), 崔九(최구): 당나라 때 인물

- 두보, 「강남봉이구년(江南逢李龜年)」 -

28. ㉑ ~ ㉘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㉑: 어젯밤 ② ㉒: 뜰의 나무
③ ㉓: 자던 새 ④ ㉔: 언제나
⑤ ㉕: 한 번

29.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가)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다.
ㄴ.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ㄷ. (나)의 운자(韻字)는 ‘聞’, ‘景’, ‘君’이다.
ㄹ. (나)는 각 구를 세 자, 네 자로 끊어 읽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0. (나)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군.

②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군.

③ 제1구와 제2구가 대우를 이루고 있군.

④ 옛 친구의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들었군.

⑤ 제4구는 시인의 처지를 충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